



평온한 바다... 돌고래와 해녀 2일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앞바다에서 물질을 하는 해녀 옆으로 돌고래가 헤엄치고 있다.

이상국기자

■ 제주지방경찰청 2017년~올 3월 기준 검찰 송치 아동학대 분석

가해자 절반 친부모... 성학대도 증가세

2017년 109건→2018년 96건→2019년 158건→올 3월 33건

제주지역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 내에서 아동학대로 적발돼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2017년 109건에서 2018년 96건으로 소폭 줄더니 지난해 158건으로 한해 사이 64.5%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아동학대 사건은 줄지 않아 지난 3월 기준으로 33건이 검찰에 넘겨졌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체학대가 16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성학대(134건), 정서학대(29건), 방임

(25건), 중박학대(21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n번방 사태처럼 아동에 대한 왜곡된 성인식이 점차 강해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아동학대 사건에서 성학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7년 22%에서 2018년 43%, 2019년 35%, 올해 42%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아동 학대 사건 대다수는 가정 내에서 발생했다. 전체 아동 학대 사건 중 55%인 214건이 가정 내에서 이뤄졌으며, 어린이집과 학교·학원은

각각 20건과 19건으로 전체의 약 5%를 차지했다.

가해자는 친부모가 대다수였다. 친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가 212건으로 전체의 5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기타를 제외한 보육교사(31건), 계부모(16건), 학원 강사(8건) 순으로 많았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학대로 적발된 사건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아동학대를 목격할 경우 경찰 등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진 영향이 크다”면서 “과거에는 계도로 끝났던 사건이 최근에는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한편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면서 직접적인 피해 아동 뿐 아니라 피해 아동의 형제·자매 등 잠재적인 피해자들도 학대 행위자로부터 격리할 수 있다.

또 기존에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해오던 아동학대 현장조사를 지자체 소속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이 수행하게 되며, 전담 공무원이나 경찰 등이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폭행 등으로 이를 방해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처벌 기준이 강화된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따뜻했던 3월... 칼바람 불었던 4월

제주기상청 월별 기온 분석

3월 평균기온 11.9℃ 역대 2위

4월엔 26년만에 대설특보 발효

역대급으로 따뜻했던 3월을 지나 4월엔 때 아닌 꽃샘한파가 이어지는 등 번덕스런 날씨로 제주의 봄이 실종됐다.

3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3월 제주지역 평균 기온은 11.9℃로 평년 대비 1.9℃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 2002년 12.2℃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기록이다. 지역별로는 제주시가 11.5℃로 1923년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은 평균기온을 기록했고, 서귀포와 성산은 각각 12.3℃,

10.8℃로 1973년 이후 집계된 순위 중 나란히 2위를 기록했다.

이에 비해 4월에는 제주시 13.2℃, 서귀포시 13.9℃ 등 13℃ 안팎을 기록했다. 특히 제주시 지역인 경우 2011년 13.2℃, 서귀포시 지역도 2010년 13.3℃에 이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였다. 지난 4월 13일에는 1994년 기상청이 대설특보를 발효하기 시작한 이후 26년만에 처음으로 4월에 대설특보를 내리기도 했다.

한편 5월에는 20℃를 훨씬 웃도는 기온을 보이며 초여름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주에선 봄 없이 곧바로 여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짙어졌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도, 제주형 재난지원금 온라인 5부제 해제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형 재난긴급 생활지원금(이하 ‘재난지원금’) 온라인 5부제 신청을 당초 8일에서 앞당겨 4일 해제한다. 또 외국인 배우자와 동거인에 대한 지급 기준도 현실에 맞도록 확대, 조정한다.

도는 3일 원희룡 도지사의 주재로 재난지원금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는 온라인 5부제 신청 해제에 따라 행복드림포털사이트에 방문해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려는 경우, 세대주의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접수할 수 있다. 이로써 도민들은 온라인을 통해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읍면동 일선 행정의 편의성도

확대돼 재난지원금이 보다 빠르게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도는 지난 4월 27일부터 1주일간 접수된 이의신청 사례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이의 신청 인용 기준을 정하고, 주민등록상 등재된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했던 외국인인 동거인의 인정 여부에 대한 기준도 재정립할 방침이다.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은 오는 22일까지이며 온라인 신청은 행복드림포털이나 도홈페이지를 방문, 오프라인 신청은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문의 제주도청 전담대응팀(710-6231~6244)으로 하면 된다.

백금탁기자

드림타워 노형오거리 ‘P턴’ 없던일로...

도 “이마트서 평화로 방향 좌회전 현행처럼 유지”

개장후 6개월 모니터링

제주 드림타워 완공 이후에도 노형오거리 이마트에서 평화로 방향으로 좌회전할 수 있도록 유지된다.

제주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지난 1일 2020년 제3회 심의를 열고 ‘제주 드림타워 신축공사 교통영향평가(3차 변경심의안) 사전검토 보완서’를 수정 의결했다.

이날 안건은 드림타워 준공을 앞두고 사업자 주민 의견 수렴과 기존 좌회전 체계를 유지하는 내용이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제주공항

우회도로(제주공항~제주시오일시장)와 신연로(노형동~연북로) 개통으로 노형오거리에서 평화로로 빠져나가는 교통량이 감소함에 따라 드림타워 완공 이후에도 이마트 신제주점에서 평화로 방향 좌회전 체계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모니터링 기간을 기존 준공 후 6개월에서 개장 후 6개월로 변경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관광객 증가 전망에 따른 교통 체계의 정확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개선점 등이 확인될 경우 사업자 부담으로 개선해야

된다. 또 위원들은 대형 교통정보시스템(VMS)을 노형로와 노연로에 총 4개소를 설치하고 움직임을 감지하는 스마트횡단보도 등의 조성을 요구했다.

한편 제주 드림타워는 2014년과 2015년 1~2차 제주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서 완공 이후 교통량 급증으로 교통 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좌회전을 금지하기로 하고 대신 노형오거리 ‘P턴’ 방식 도입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과 사업자가 기존 좌회전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주도에 전달하는 등 민원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드림타워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변경 심의가 추진됐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남원포구서 변사체 발견

서귀포시 남원을 남원포구 내 해상에서 50대 남성의 변사체가 발견돼 해경이 수사에 나섰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 2일 오전 8시27분쯤 남원포구 내 해상에 숨진 채 떠있는 변사체를 수습, 서귀포시 소재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해상에 사람으로 보이는 물체가 떠있다”는 시민의 신고가 접수됐다.

발견된 변사체는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A씨로 밝혀졌다. 해경은 전날 밤 함께 술을 마셨다는 지인의 진술과 A씨가 항구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귀포해경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김도영기자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 운영

제주지방경찰청은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4일부터 31일까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당국의 허가 없이 보유한 총기, 화약·폭약·실탄·포탄 등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총격기, 석궁 등이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등 경찰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면 형사·행정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신고 후 계속 소지하기를 바랄 경우 결격 사유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문제가 없으면 허가하기로 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자진 신고기간이 끝나는 6월부터 한달간 전국적으로 불법 무기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엉 사랑으로

한라일보 창간 31주년을 축하합니다.

산주·임업인 여러분의 꿈과 미래!

산림경영지도로 함께 이루어 드립니다

산림경영지도분야

1. 산림경영지도 종합상담
2. 산림경영계획, 조림, 숲가꾸기, 대리경영
3. 임목수확, 임업기계, 임업면세유
4. 임산물 생산지도

5. 임산물 유통
6. 임업정책자금
7. 임업인 교육, 기타문의

상담문의

제주시 산림조합
064)742-4883

서귀포시 산림조합
064)766-4541

찾아가는 산림경영지도 함께하는 산림조합

산주·임업인의 밝은 미래를 약속합니다!

SJ 산림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산림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